

식품표시 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중학생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김 정 현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Food Labels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with the Food Labeling System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Jung Hy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od and nutrition label education on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nutrition labels on food packaging, and to su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food and nutrition label educ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811 junior-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nutrition labels. Knowledge of nutrition labels was tested by 13 questions on the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using SAS package program) based on the educational experience with nutrition labels.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were tested using the χ^2 -test and t-test. Students who had learned about the food and nutrition labeling system had more knowledge of nutrition labels and were more likely to check the nutrition label before purchasing food. In addition, students who had been educated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s in the school curriculum had a significantly higher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nutrition label syst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 concerning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system increased the students' interest in nutrition labels and helped them choose healthy fo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an education program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s in the school curriculum to help students use label information and make healthy dietary choices.

Key words: food and nutrition label, education experience

I. 서론

청소년기는 급속하게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이 확립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문수재·이영미 1986). 또한, 이 시기에 확립된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고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

접수일: 2009년 1월 6일 채택일: 2009년 2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Kim, Jung-Hyun Tel: 02-820-5378 Fax: 02-817-7304
e-mail: jjhkim@cau.ac.kr

나, 가공 및 즉석식품등 편의식품의 증가와 서구식 식생활의 유입으로 식생활 양상이 크게 변화되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아지게 된 반면 외식,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게 되었다(오유미 2005; 이정숙 2003; 김은숙 2005). 대부분의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은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 함량이 낮고 열량만 높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김동순 2001).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식품 구매시 식품의 영양성과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맛이나 식품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이선웅 2000; 정복미 2003; 이종희 1992; 고혜란 2001).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 과정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을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식품표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소비자에게 영양소를 포함하여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이정원 2001; 차연수 2005). 따라서,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는 그 목적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이해정도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동순 2001; 보건복지부 2006).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도 위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커서 식품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이인숙 2002).

현재 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은 9학년 『기술·가정』 교과 내 ‘식생활 영역’에 심화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품표시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공식품 구매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 절반 정도는 식품표시에 대해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식품표시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 교육의 필요성 등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식품표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위치한 7개 중학교 1, 2, 3학년(30.5%, 32.3%, 37.2%), 총 8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되었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오미란 2005; 김동순 2001; 정흔희 2005; 이경희 1996; 김경희 1993; 정혜열 2004; 임현슬 1997)를 참고로 작성되었고,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총 87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829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18부를 제외한 총 81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실태와 식품표시제도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표시 관련 교육 경험여부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 교육의 필요성, 학교 교육의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실생활 활용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식품표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3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식품표시 지식 인지도(perceived knowledge)”와 “정확도(correct knowledge)”를 구하였다.

$$\text{인지도} = \frac{\text{'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표시한 문항수} \times 100}{\text{전체 문항 수}}$$

$$\text{정확도} = \frac{\text{정답의 수} \times 100}{\text{'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표시한 문항수}}$$

2.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조사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지식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식품표시제도의 인지, 교육의 필요성 및 실생활 활용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각 변인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Chi-square test 와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학생들의 식품표시관련 교육 실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내용을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56.0%로 절반이상의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제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식품표시 관련 교육 경험 여부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학년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교육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육을 받은 학생 중에서 91.4%의 학생이 기술·가정교과를 통해 식품표시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기술·가정 교과를 통해서 식품표시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학년에 따라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과과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이와 같이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기술·가정 과목을 통해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것은 현재 7차 교육과정 중 9학년 기술·가정 교과과정에 식품표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ble 1. Educational experience of food and nutrition label in school curriculum

Item	Gender		Grade			Total (n=811)	
	Boys (n=370)	Girls (n=441)	1st grade (n=246)	2nd grade (n=262)	3rd grade (n=303)		
Educational experience	Yes	191(51.6)	263(59.6)	84(34.2)	146(55.7)	224(73.9)	454(56.0)
	No	179(48.4)	178(40.4)	162(65.9)	116(44.3)	79(26.1)	357(44.0)
	$\chi^2=5.246^*$		$\chi^2=87.202^{***}$				
Subject	Korean	4(2.2)	1(0.4)	3(3.8)	2(1.4)	0(0.0)	5(1.1)
	Home Economics & Technology	165(89.7)	240(92.7)	58(72.5)	133(93.7)	214(96.8)	405(91.4)
	Society	1(0.5)	4(1.5)	3(3.8)	1(0.7)	1(0.5)	5(1.1)
	Others	14(7.6)	14(5.4)	16(20.0)	6(4.2)	6(2.7)	28(6.3)
	$\chi^2=4.933$		$\chi^2=46.591^{***}$				

*p<.05, ***p<.001

2.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식품표시 인식 및 활용실태

1)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제도 인식 비교
 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식품표시제도의 인식정도를 알아 본 결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식품표시 제도를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5%, 37.2%로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응답률인 3.1%, 3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또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7.4%인데 반해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37.1%나 되어 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42.7%만이 식품표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식품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교육경험과 무관하게 학생들 모두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에서 식품표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관련 지식 정도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지식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품표시 지식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80.2%)이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생(74.4%)과 비교하여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또한, 정확도도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이(60.3%)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54.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p < .001$), 식품표시관련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로 부터 공인된 교육매체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반면에 대중매체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식품표시 관련 지식을 얻은 학생들은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

Table 2. Perception and necessity of food and nutrition label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Item	Educational experience		Total (n=810)	
	Yes (n=454)	No (n=356)		
Perception on food and nutrition label	Know very well	25(5.5)	11(3.1)	36(4.4)
	Know somewhat	169(37.2)	108(30.4)	277(34.2)
	Have heard about it	181(39.9)	105(29.5)	286(35.3)
	Never heard about it	79(17.4)	132(37.1)	211(26.1)
$\chi^2=41.132^{***}$				
Necessity of food and nutrition label	Very necessary	211(46.6)	159(44.8)	370(45.8)
	Necessary	157(34.7)	102(28.7)	259(32.1)
	Somewhat necessary	72(15.9)	82(23.1)	154(19.1)
	Not much necessary	4(0.9)	4(1.1)	8(1.0)
	Unnecessary	9(2.0)	8(2.3)	17(2.1)
$\chi^2=7.926$				

***p<.001

Table 3. Knowledge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Total (n=811)
	Yes (n=454)	No (n=357)	
Perception (%)	80.2±25.5**	74.4±28.6	77.7±27.1
Accuracy (%)	60.3±22.6***	54.3±23.9	57.7±23.4

** p<.01, *** p<.001

¹⁾ Mean±S.D

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활용실태 비교
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확인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Table 4),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반드시 또는 대체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적

Table 4. Utiliza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Item	Educational experience		Total (n=808)	
	Yes (n=452)	No (n=356)		
Dgree of checking	Always	38(8.4)	26(7.3)	64(7.9)
	Sometimes	147(32.5)	112(31.5)	259(32.1)
	Not much	205(45.4)	142(39.9)	347(43.0)
	Never	62(13.7)	76(21.4)	168(17.1)
$\chi^2=8.553^*$				
Reason to check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To check unhealthful additives	53(29.1)	37(27.0)	90(28.2)
	To check nutritional value	58(31.9)	53(38.7)	111(34.8)
	To check price and weight of products	39(21.4)	28(20.4)	67(21.0)
	To purchase the right products	11(6.0)	8(5.8)	19(6.0)
	To know how to use products	6(3.3)	3(2.2)	9(2.8)
	Others	15(8.2)	8(5.8)	23(7.2)
$\chi^2=2.175$				
Reason not to check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I am not interested in food and nutrition label.	115(43.4)	100(45.9)	215(44.5)
	It is too small to read.	60(22.6)	40(18.4)	100(20.7)
	It is hard to understand.	40(15.1)	36(16.5)	76(15.7)
	There was no food and nutrition label.	7(2.6)	11(5.1)	18(3.7)
	I can't trust it	5(1.9)	5(2.3)	10(2.1)
	I am not used to check it	28(10.6)	18(8.3)	46(9.5)
	Others	10(3.8)	8(3.7)	18(3.7)
$\chi^2=4.007$				

* p<.05

으로 높았던 반면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학교에서의 식품표시 교육이 학생들의 식품표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식품표시 활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품을 구매·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표시 확인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경험과 상관없이 영양소 함량과 첨가물 확인, 가격과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식품표시가 너무 작거나 조잡해서’, ‘식품표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고,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식품표시를 확인 하지 않는 이유 중 식품표시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7%나 되어 현행 표시 제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실제 식품표시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교육에 대한 인식 비교

1)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필요성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77.5%는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이 “매우”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 경

Table 5. Necessity of food and nutrition label education in school system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N(%)

Item	Educational experience		Total (n=811)	
	Yes (n=454)	No (n=357)		
Necessity of food and nutrition label education in school curriculum	Very necessary	79(17.4)	43(12.0)	122(15.0)
	Necessary	273(60.1)	160(44.8)	433(53.4)
	Not much necessary	84(18.5)	119(33.3)	203(25.0)
	Unnecessary	18(4.0)	35(9.8)	53(6.5)
$\chi^2=40.579^{***}$				
Reason to educate food and nutrition label in school system	It is helpful	204(51.4)	96(39.0)	300(46.7)
	To know food and nutrition label	33(8.3)	19(7.7)	52(8.1)
	To have right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	122(30.7)	88(35.8)	210(32.7)
	There is no place to learn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	35(8.8)	41(16.7)	76(11.8)
	Others	3(0.8)	2(0.8)	5(0.8)
$\chi^2=14.148^{**}$				
Reason not to educate food and nutrition label in school system	It is not helpful	69(33.0)	79(36.7)	148(34.9)
	I can learn from my parents	77(36.8)	70(32.6)	147(34.7)
	I already know even though I didn't learn	54(25.8)	51(23.7)	105(24.7)
	Others	9(4.3)	15(7.0)	24(5.7)
$\chi^2=2.510$				

** $p<.01$, *** $p<.001$

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56.8%만이 식품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식품표시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51.4%와 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의 39.0%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식품표시 내용의 올바른 지식 습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30.7%와 35.8%로 나타나 교육경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1$).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식품표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표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정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식품표시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식품표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지만,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식품표시 지식정도가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지식정도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가정에서의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2)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실생활 활용 정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식품표시 관련 교육이 실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39.2%가 학교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28.8%만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여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 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식품표시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식품표시의 활용을 늘려 학생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들의 기술·가정 교과와 「식생활 단원」의 필요도를 조사한 김진숙(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들의 경우에 ‘가공식품 구입 시 성분과 유통기한을 확인’이라는 점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식품표시 관련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식품의 성분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할 경우가 많아져

Table 6. Use of food and nutrition label depending on educational experience

Item	Educational experience		Total (n=806)
	Yes (n=452)	No (n=354)	
Very helpful	24(5.3)	18(5.1)	42(5.2)
Helpful	153(33.9)	84(23.7)	237(29.4)
Somewhat helpful	198(43.8)	146(41.2)	344(42.7)
Not much helpful	50(11.1)	56(15.8)	106(13.2)
Unhelpful	27(6.0)	50(14.1)	77(9.6)

$\chi^2=24.462^{***}$

*** $p<.001$

학교에서 배운 식품관련 내용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교육 실태와 교육경험에 따른 식품표시 인식 및 이용실태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학교교육 과정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술·가정교과에서 식품표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대상자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의 학생들이 기술·가정교과를 통해서 교육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식품표시 관련 교육경험여부가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식품표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인지도와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식품표시 관련 교육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생활에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과과정 중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식품표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식품표시에 대한 지식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이 학생들에게 식품표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 학생들이 식품 구매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식품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식품표시 관련 교육이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과과정에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은 기술·가정교과에서 다소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 내용 또한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기술·가정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식품표시 관련 교육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사는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이론 수업방식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고혜란(2001) 식생활단원 교육이 중학생의 영양지식·식태도·식습관 및 TV식품 광고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3) 현행 식품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순(2001)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지도와 이용실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숙(2005)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7(3), 53-70.
 김진숙(2005)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활용정도에 따른 식행동 관련 요인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수재·이영미(1986) 청소년의 식품에 대한 가치 구조의 분석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2), 142-156.
 보건복지부(2006) 국민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 영양조사(1).
 식품의약품안전청(2005) 식품 등의 표시기준. 2005. 3. 7 개정
 오미란(2005) 중학생의 식품선택 및 식품구매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유미(2005) 학교급식이 남녀 중학생의 영양 지식과 태도,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2), 163-173.
 이경희(1996)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 대한

- 가정학회지 34(5), 235-248.
- 이선웅(2000) 서울과 경기지역 남녀 중학생의 영양 지식에 따른 영양태도, 식행동 및 영양섭취 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3), 419-431.
- 이인숙(2002)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 관련 식행동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3), 299-308.
- 이정숙(2003) 청소년의 성별, 비만도,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가 식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5), 652-657.
- 이정원(2001) 중학생과 학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식품표시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9(3), 185-196.
- 이종희(1992) TV광고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슬(1997)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이용실태 및 영양 표시에 대한 인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복미(2003) 전남 여수지역 청소년들의 비만도와 식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2), 129-137.
- 정혜열(2004) 인천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가공식품 이용 및 영양표시 인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흔희(2005) 고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이용실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연수(2005) 전주와 대구지역 시판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실태 조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5(4), 482-492.